



해외 동향

□ IATA, 코로나19 확산에 항공업계 134조원 매출 손실 전망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항공사의 매출이 1,130억 달러(한화 약 134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는 항공운수산업의 권익 대변과 정책 및 규제 개선, 항공사 안전운항 지원 등을 위해 1945년 쿠바에서 설립된 민간 기구로 117개국 290개 항공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이는 전체 항공 교통의 82% 차지

- 코로나19로 여행 제한과 여객 수요 부족이 이어지면서 두 달여 만에 많은 항공사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실적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영국의 대형 저비용항공사 플라이비(Flybe)는 코로나를 버티지 못하고 파산
- IATA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항공업계가 겪었던 재정적 영향과 비슷하다며 코로나19가 조만간 억제되고 전 세계 경제가 빨리 회복된다면 손실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록히드마틴·보잉 협력업체, 최신식 랜섬웨어에 당해

- 록히드마틴, 보잉, 스페이스엑스 등에 정밀 부품을 납품하는 미국의 비서 프레시전(Vissor Precision)이 최신 문제가 되고 있는 도펠페이머(DoppelPaymer)* 랜섬웨어에 의해 중요 정보가 유출됨

* 도펠페이머(DoppelPaymer)는 최근 떠오르는 랜섬웨어로 파일 암호화로 시스템을 마비시킬 뿐 아니라 데이터를 밖으로 유출하는 것이 가능

- 보안 업체 엠시소프트(Emsisoft)의 위협 분석가가 비서 프레시전과 스페이스엑스(SpaceX), 하니웰(Honeywell)과 같은 회사 사이의 비공개 협약문이 해커 포럼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며 조사에 착수

- 록히드마틴 측은 협력업체와 관련된 사이버사고에 대한 표준 대응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밝힘
- 비서 프레시전은 이번 공격으로 사업 아이템 및 가격 정보 뿐 아니라 보안이 중요한 기업들과 기밀 유지 협약을 맺은 계약서까지 노출되어 각종 소송 및 벌금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국내 동향

□ 산업부, 국방부와 3D프린팅 금속부품 국방규격 마련

- 산업부와 국방부는 국내 최초로 3D프린팅으로 제작하는 금속 부품의 국방규격 마련
- 양 부처는 2017년 12월 ‘국방과 3D프린팅 산업간 제조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종 되거나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방부품들을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하거나 실증하기 위해 협력
- 국방부는 육군방공학교와 운용부대를 대상으로 한 시제품 현장평가와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위사업청의 기술검토와 심의를 거쳐 규격 마련
- 이로써 발칸포 부품인 ‘하우징 조절펜’과 같이 국내에 생산업체가 없고 3D프린팅으로 제작하더라도 품질인증 기준이 없어 사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하고 추후 조선, 항공 등 민간 분야까지 확대해나갈 예정

□ 내년부터 드론 실명제 시행, 국민 안전 확보

- 국토교통부는 성능과 위험도에 따라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 내년부터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은 기체를 신고하고, 취미용 드론(250g~2kg) 조종자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2kg이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요구할 계획

-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
- 개정안은 오는 5월경 공포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1년 1월 1일부터 시행

□ 휴니드, MBDA와 3D프린팅기술 협력 체결

- 인천 소재 항공방산 기업 휴니드테크놀로지스가 유럽의 세계적인 미사일 기업 MBDA와 5년간 '3D프린팅 기술 개발 계획'에 관한 계약 체결
- '3D프린팅 기술 개발 계획'은 방위사업청이 최초로 승인한 3D프린팅 산업 관련 프로젝트로 양사는 미사일 시스템 관련 부품을 공동으로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공급할 계획
- 휴니드는 본 사업을 위해 독일의 EOS와 기술제휴를 맺고 기술혁신 센터를 설립하여 국내 최초로 국방항공 분야 적층 제조 특수공정 인증을 획득
- MBDA는 육·해·공군에서 요구하는 모든 범위에 해당하는 미사일과 미사일 시스템을 설계 및 생산할 뿐 아니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체계통합을 추진 중이며 이번 프로젝트가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도내 동향

□ 경남, 강소특구 3곳에 연구소기업 탄생

- 경남도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창원·진주·김해에 각각 제1호 연구소기업 탄생
- 창원의 (주)수퍼제닉스는 한국전기연구원이 보유한 '고온초전도 전자석 기술'을 사업화해 초고속 열차 분야, 항공기용 초전도 전기추진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

- 진주의 (주)에이엔에이치시스템즈는 경상대학교 기술지주(주)가 보유한 ‘복합재료 스티칭용 재봉틀’ 특허를 활용해 휴대성과 작업성이 개선된 제품을 개발해 복합재 부품보강용 장비 및 항공정비산업(MRO)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
- 김해의 (주)더블유랩은 재료연구소와 (주)신영에어텍의 공동출자로 탄생한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업으로 저온 플라즈마를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의료기기 개발
-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되며, 향후 신성장 동력 산업을 견인할 예정



관내 동향

□ 관내 업체, ‘보잉 737 맥스’ 부품 수출 재개

- 추락사고로 올1월 생산이 중단된 보잉 737 맥스의 생산 재개에 따라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아스트 등 관내 업체의 관련 부품 수출도 재개
- 3월 3일 코스닥에 상장한 항공 소재·부품 기업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보잉의 최대 협력사인 스피릿(Spirit)사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부품을 생산하여 3월 중순부터 수출선적을 재개할 예정
- 항공기 정밀구조물 제작업체 아스트 역시 스피릿으로부터 동체 생산을 위한 고지를 받고 3월부터 후방동체 핵심 부품 ‘섹션 48’ 등을 본격 납품할 예정
- 이로써 보잉 737 맥스 생산 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국내 항공업체들의 부품 수출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장주관사를 선정하면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던 율곡, 에이에스티지 등도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사천시, 국산헬기 ‘수리온’ 구매 호소

- 송도근 시장과 이삼수 시의회의장은 ‘국산헬기 수리온 구매 호소문’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소방청장, 광역자치단체장 등 28개 기관 부처에 전달
- 우리 기술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생산하는 국산헬기가 소방헬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는 각급 소방본부의 입찰에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호소문 작성
- 호소문을 통해 항공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국산헬기를 구매해줄 것과 지자체 단위로 시행되는 소방헬기 구매를 통합관리·구매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



수리온(SURION)

- 제작사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 2010년 개발한 최초의 국산 기동헬기
- 수리온 개발로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국 반열에 오름
- 의무후송전용헬기, 경찰청헬기, 산림청헬기, 소방헬기 등 다양한 파생형 헬기 개발 및 생산

□ 사천시, 싱가포르 에어쇼 타겟마케팅 나서

- 사천시는 경남테크노파크와 함께 5개 항공업체 관계자 등 총 17명으로 이루어진 해외수주 개척단을 꾸려 2.10.~2.13. 4일간 싱가포르 타겟 마케팅에 나선다.

※ 사천 항공기업(4개사 11명) : 씨엔리, 에어로코텍, 한국복합소재, KAEMS

- 사천시는 2.11.~2.16. 싱가포르 창이 전시센터에서 개최된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가하여 참가업체의 B2B 미팅을 지원했고, **수출상담 31건, 상담액 78 백만 불(약959억 원) 성과를 달성함.**
- 특히, 이번 에어쇼에서 KAEMS는 총 3건의 MOU(AAR 항공기 부품정비, 루프트한자 MRO인증 교육, 보잉(BDSI) 항공기 수리부품 공급)를 체결함으로써 MRO 인프라를 확대하고 부품정비의 영역을 넓힘.
- 또한 이번 개척단을 이끈 최재원 사천시 부시장은 경남도 홍보관에서

공군인사참모부장(박창규 소장)과의 미팅을 통해 MRO 사업을 포함한 관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작성일	2020. 03. 06.(금)	보고일	2020. 03. 09.(월)
부서명	우주항공국 우주항공과	담당자	이희진(055-831-3482)